

복지 예산 ‘대란’에 U대회까지... 광주, 내년 살림 빚내서 꾸릴 판

자동차벨리·일자리 1만개 등
민선 6기 사업 동력 잃을수도

내년도 살림 설계에 나선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비에다가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오던 사회복지 인건비마저 끊기게 되면서 복지예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에 1000억원이 넘는 지방비까지 투입해야하는 실정이라서 예산 부족으로 민선 6기 첫 공약사업마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조3444억원으로, 올해 1조2468억원보다 976억원(국비 659억원, 시비 31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방비 기준으로 올해 170억원(시비 121억원, 구비 49억원)에서 내년에는 321억원(시비 227억원, 구비 94억원)으로 151억원이나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원액도 대폭 증가한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올해 기초연금으로 497억원(시비 298억원, 구비 199억원)을 지출했으며 내년에는 227억원이 늘어난 724억원(시비 434억원, 구비 29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지

광주시 내년 살림살이 예산

총 가용재원	3000억원 안팎
기초생활 보장급여	321억원
기초연금 지원액	724억원
U대회 시설비	1247억원
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500억원(추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400억원(추정)

：

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광주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특히 내년에는 U대회를 개최하는 해로, 시설비 557억원과 운영비 690억원 등 1247억원의 지방비까지 투입해야할 입장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지원금 400억원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500억원 등도 지출해야 한다.

광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 기준 3조8000억원 중 법적 의무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30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등 빚 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야할 판이다.

이 때문에 민선 6기 역점 사업인 자동차벨리조성 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 차이나프렌들리,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지원 등 신규 사업들이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도 시민들의 개통 여론에도 재검토 절차를 밟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선 자치구(구청)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급증에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는 지난 2012년 입사한 사회 복지담당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은 업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7000명(광주 168명)을 증원해 인건비를 3년간 70%씩 보조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지난 2012년 이후 신규 총원된 사회복지직의 인건비로 올해까지는 2억2500만원을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19억 1250만원을, 2016년에는 32억2500만원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지원방식(3년 한시지원)으로 5000명(광주 18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총원할 계획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의 공약과 철학을 반영한 첫 예산을 짜야하는데 당장 급한 지역민들의 해결할 돈도 없다”면서 “말만 지방자치이지, 중앙정부에 예산이 종속돼 지방자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삼성, 채용제도 개편 ‘직무적합성 평가’ 도입

사실상 서류전형 부활 논란

삼성그룹이 직무적합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필기시험 이전에 서류로 진행되는 직무적합성 평가를 신설한 것이어서 취업준비

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서류전형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제도는 내년 하반기 대졸 공채부터 적용된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은 5일 채용제도 개편 브리핑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험 위주의 획일적 채용 방식을 직군별로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3급 신입사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직군별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직무적합성 평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직·경영지원직은 지원할 때 ‘직무예제시’를 제출하게 하고, 연구개발·기술직과 소프트웨어 직군은 전공능력 중심

(이수과목·학점·난이도)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에 지원하는 취업준비생은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보기 전에 직무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로써 삼성의 채용 단계는 기존의 ‘SSAT-실무면접-임원면접’ 3단계에서 ‘직무적합성 평가-SSAT-실무면접-창의성면접-임원면접’의 5단계로 복잡해졌다. 삼성이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95년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년 만이다.

삼성은 직무적합성 평가가 서류전형의 부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대학 35%, 저소득층 5%로 할당된 열린 채용제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겨울이 성큼...세월호 분향소 실내로, 야외엔 스케이트장 공사



5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다음달 24일 개장을 목표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청 문화광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 분향소’가 마련된 이후 모든 행사를 금지해 왔으나, 겨울철을 맞아 추모 분향소를 시청 내부로 이동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도요금 현실화 땀...전남 인상폭 서울의 77배



t당 231원 오른 1045원 돼야 생산원가의 90%

노후 상수관 정비 새나가는 수도물 우선 잡아야

톤(t)당 3원이 오른 568원이었다.

반면 전남은 이보다 77배나 되는 톤(t)당 231원이 오른 1045원으로 계산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에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적정과 계획 목표제를 권고했다. 최계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톤당 564.6원이며 생산원가는 630.7원이다. 그러나 전남은 톤당 813.7원의 수도요금을 냈으며 생산원가는 무려 1161.2원이다.

지난 2011년에도 전남 22개 시군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톤당 786.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 같은 생산원가 차이는 누수를 때문

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3.1%의 누수율을 보였지만 전남은 전국에서 최상위권인 23%였다.

또 전남에서 누수율이 48.9%로 가장 높은 진도군은 생산원가 또한 전남 22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톤당 2200원이었다.

주 의원은 “생산한 수도물 3분의 1이 중간에서 졸출 새버리니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남의 경우 일반재정으로 수도사업의 적자를 매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노후 상수관의 정비를 할 업두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수도요금 인상보다는 졸출 새는 누수를 우선 잡아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노후 상수관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A200CDI 1,796cc, 1,479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ℓ (도시연비: 16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A200CDI Style 1,796cc, 1,479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ℓ (도시연비: 16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A200CDI Night 1,796cc, 1,479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ℓ (도시연비: 16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